

# 앞으로도 전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

## “넌편, 내편 없이 우리편으로”

**퇴**임을 앞둔 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도 전북을 위해 여러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넌편, 내편 없이 우리편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자랑스러운 전북을 만들 것”이라는 통합의 메시지도 전했다.

행정전문가로 또, 정치인으로 40년을 전북을 위해 일해 온 송 지사의 퇴임식은 오는 29일 도청에서 소박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본보는 송하진 도지사를 찾아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행보에 대해 들어봤다.



**Q. 16년의 정치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셨습니다. 소회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까?**

**A.**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도지사의 소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모든 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여정은 막을 내렸지만 전북인 송하진이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으로서 전북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지난 8년 전북도정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아주신다면?**

**A.** 먼저 국가적 전략산업 위치에 이른 탄소산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시작한 산업이 국가산업이 되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산업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선 찾아보기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참보람되고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탄소 섬유는 고강도 초경량이라는 소재 특성상 우리 도의 전략산업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조선산업, 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계돼 있어 향후 부가가치 창출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을 비롯한 교통 기반시설 구축도 기억에 남습니다. 2028년이던 새만금에서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인입철도도 신항만 등 새만금과 외부를 잇는 모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길은 문명의 출발점입니다. 새만금의 길을 열어 생태문명을 위한 기반을 준비한 점에 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의 자존의식 고취도 기억에 남습니다. 호남재일도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마음이나 생각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전라 김영복원과 가야·후백제 역사 복원과 같은 역사문화 세우기를 통해 자존의식을 고취시켰고, 전북 뭍 찾기를 통해 소외됐던 예산, 인산, 정척 등의 불균형을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을 호남의 한 지역이 아닌 당당한 독자적 경제권으로 인식시킨 점은 적지 않은 성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체질 개선과 산업지도 재편으로 10대 광역경제권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탄소산업과 이와 연관된 첨단산업들, 수소와 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그리고 홀로그래프와 농생명 등 새로운 산업들을 준비했구요. 새만금 개발로 이러한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전북의 대도약이 이뤄질 무대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이 무대를 잘 채울 수 있도록 끝까지 돕고 지켜보겠습니다.

**Q. 정치 인생동안 가장 아쉬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전주-원주 통합과 전주중흥기장 개발입니다. 특히, 전주-원주 통합에는 두 번 도전했습니다. 마지막 도전 때는 성공할 뻔도 했지요. 통합 반대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저도 통합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

린 게 그때였습니다. 열렬하게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미안했고, 광역시 하나 없는 지역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중요한 동력을 놓친 일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지역발전보다 개인의 정치적 영달과 장래의 유불리를 따졌던 정치인들에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주-원주 통합을 비롯해서 행정통합 문제도 마찬가지로 잡니다.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더 늦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정말 전북발전이라는 목표만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도지사로 일하면서 ‘생태문명’이라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를 지역발전의 화두로 꺼내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A.** 고 이어령 선생님께서 코로나와 관련해 진행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생명이 자본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셨더군요.

많은 이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가운데서 세계는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고, 앞으로 인류는 포식에서 기생, 기생에서 상생의 단계로 발전해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매우 공감합니다. 우리는 산업을 통해서 풍요와 발전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엔 오직 사멸만이 있을 뿐 자연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연과 공존은 인류 생존을 위한 절대적 조건임에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경종이자 촉박입니다. 발전의 방향과 내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니까요.

이러한 대전환은 그간 제조업 시대에선 부족했으나 그 덕분에 깨끗한 생태자원을 지켰고 친환경 미래산업을 차근차근 준비해온 전북에는 더욱더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북은 앞으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상생발전이 가능한 생태문명의 거점으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나간다면 큰 성장과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Q. 전국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승리했지만 공천과정에서의 잡음 등으로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지역 정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었다는 평인데요. 전북정치에 대해 한 말씀?**

**A.** 코로나로 거대한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정치 담론도 대전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는 지금까지 자유와 정의, 민주, 진리, 평화와 같은 거대 담론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민들은 거대 담론보다는 편안한 일상, 소소한 행복을 더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추상적 이념 정치 행정 시대에서 구체적 생활 정치, 행정 시대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탄소산업, 국가산업대거의 유일무이한 사례로  
도민 자존의식 고취  
지역 경제체질 개선 등  
8년 성과 중 기억에 남아**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시스템에 스며들어야  
구체적 삶의 현장 가꿀 수  
있는 정치·행정 가능해져**



하지만 여전히 우리 정치는 정치를 거대한 이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체로 보고 조직과 시스템을 마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기제라고 여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가끔 혹은 아주 자주 인간의 약의를 감추고 포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계적 공정으로 결과적으로 는 약의를 실현하는 시스템이 아닌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시스템에 스며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거대한 담론적 가치보다는 구체적 삶의 현장을 가꿀 수 있는 정치,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공직자로, 정치인으로 40년을 일해오셨습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논어의 첫 부분은 ‘학이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2500년 전부터 배움은 중요한 일이었다는 얘기고요. 왕도와 정치를 논하던 공자가 가장 강조한 게 학습이란 것이죠.

정책은 인간이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끊임 없는 문제 해결의 과정입니다. 정책을 좀 더 그럴듯하고 바람직스럽게 만들어가려면 당연히 공무원이 인간사회에 대해 끝없이 공부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배움의 범위는 끝이 없고 방법 역시 한계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공부하는 만큼 전북은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이든, 어디에서든 공부하고 배우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Q. 퇴임 후 어떻게 지내실 계획입니까?**

**A.** 전주에서 자릴 계획입니다. 거쳐 는 시대에 이미 마련했습니다. 산책도 나가고 자연스럽게 도민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워낙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쁘게 일할 때에도 일부러 차에서 내려 도심을 걸곤 했는데 이제 유유자적하게 걸을 수 있고 도민과 만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도지사 시절에 추진한 천리길도 여유롭게 둘러볼 생각입니다. 산정일 선생이 길동무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공부도 꾸준히 하고 글도 쓰고 글씨도

쓰려고 합니다. 아직 활력도 건강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송하진이라는 개인의 삶이 주가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전북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Q.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 40년 전북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낌없이 응원해주신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었고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 곁에서 내 고향 전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기자

2022 월간더문화

## 6월 첼발리스트 최현영

**공연시간**  
6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장소**  
문화공간 이름

### 프로그램

1. Louis Couperin, Suite in a minor (Prélude-Allemande-Courante-Sarabande-La piémontaise)
2. François Couperin, Les Barricades misterieuses - Les ombres errantes
3. A. Forqueray, La montigni
4. G.F.Haendel, Suite HWV 434 (Prelude-Aria con variatio -minuet-Chacone)
5. J.S.Bach, Toccata in d major BWV 912

